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ion in Household Work*

목포여자고등학교
시간강사 이 지 선
목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주거학과
교 수 조 혜 정

Mokpo woman's high school
Instructor : Lee, Ji-Sun
Dept. of Consumer, Child & Housing, Mokpo National Univ.
Prof. : Cho, Hea-Joung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분석 |
| II. 관련연구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aims at prediction of the children's in participation household work and supply of basic data for the children's home education to get a desirable family life through the investigation into their household work participation degree and its character and through the detection in its influencing factor.

The research consequence can be summarized on the followings.

The children's total participation degree of the household work records 3.13. Girls take part in the household work more than boys do in almost all household work areas.

Variables which had influences on their participation are praise, sex distinction, assistant, and father's participation in house work

I. 문제제기

현대가정은 외형적으로는 핵가족화, 자녀수의 감소, 가정에 머무는 시간단축 등과 내면적으로는 가

족원간의 상호접촉과 자녀를 위한 가정교육이 줄어들어 드는 등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축소되어가고 있다.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축소되는 것은 가족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원 모두에게는 물론 특히 청소년 자녀에게 가정생활문화를 접할 기회를 줄어줄게 하고, 인간과 사물에 대한 이해 등을 어렵게 하여 인간에게 가장 적절한 인간발달의 환경이 상실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현대 가정의 위기라고 부를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 가정의 역할과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실천적인 가정생활 즉, 적절한 가사노동의 수행 및 관리가 중요하다. 가정생활은 가사노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또한 가정의 기능도 가사노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정생활은 전 가족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사노동을 통하여 유지되고, 가사노동을 통하여 가족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발달이 이루어지며 가족공동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원의 가사노동참여는 개인적·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미래의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주인공인 청소년은 이 시기에 육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의 일반적 발달이 일어나며, 성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생활적 능력과 기술을 획득하고 가치판단과 행위의 내적 기준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참여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가사노동을 찾아주고 그리고 참여방법과 수행요령을 가르쳐 주어 스스로 그 일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주체적인 생활인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생활기술과 역할을 학습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정도는 매우 미약하고, 그 중요성은 가족원이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위금영, 1992).

더구나 우리 나라 경우에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과 지나친 학력중시의 가치관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중요한 가정 교육적 가치가 있는 가족원의 가사노동참여가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도외시되고 있다.

이처럼 가사노동에 대한 가정 교육적 역할의 중

요한 의미를 가족원 모두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많은 가정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가는 상황에서 가정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가사노동에 대한 가정교육적 가치 인식전환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연구들은 가족원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인식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들의 적극적인 가사노동참여를 위한 교육적 자료로서 청소년의 가사노동 참여수준과 그 특성, 그리고 가사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사노동 참여수준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여 청소년의 가사노동 참여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가사노동참여를 통한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을 위한 가정생활교육의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가사노동 참여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배경 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구성 변인, 주거특성 변인, 가족심리적 변인, 가사조력자 변인)에 따라 가사노동 참여는 어떠한가?

II. 관련연구고찰

1. 가사노동의 개념 및 가치

가사노동은 가정생활을 건설·유지·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윤을령, 1980)으로 가족원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가족을 구성하는 개개인의 복지를 제공하며 가족원과의 관계유지, 그리고 가족의 발달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은 개개인의 가정생활의 장이며 가족원들의 넓은 생명활동이 포함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가정생활의 역사를 구축하며 가정생활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문화적·기술적·교육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大森和子, 好本照子, 何部和子, 1981).

인간은 가사노동을 통하여 인간활동의 본래적 의미를 이해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의 가사노동에 대한 이해는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현상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가정은 문화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다(문숙현, 문숙재, 1997).

노동의 훈련과정으로서 가정의 가사노동을 다룬 Witiner(1980)의 연구와 자녀의 가사노동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를 제시한 Whiter와 Brinkerhoff(1981)의 연구는 자녀의 가사노동이 갖는 교육적 의미를 밝힌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볼 때,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정의 역할과 기능 축소 문제와 다양한 가족문제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원에 의한 가사노동의 본래적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사노동의 수행이 모든 가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가사노동의 내용 및 분류

가사노동의 내용에 영향을 주는 가정내외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사노동의 작업내용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사노동의 개념에 의해서 사회변화에 따라 어떠한 작업이 포함되고 사라지는지 지속적인 가사노동의 내용 및 분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국내의 학자들이 규정한 가사노동의 내용과 분류(Hall & Schroeder, 1970; Nickell, 1976; 윤복자 1975; 김의숙, 1981; 서창원과 이기영, 1984; 조미환, 1996)를 종합하면 가사노동 영역은 5개 작업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는 또다시 다양한 개별작업들이 포함되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첫째, 의생활관리에는 세탁, 다림질, 재봉, 편물, 옷손질 등이 포함되며
- 둘째, 식생활관리는 식사준비, 설거지, 특별음식준비, 식사시의 심부름 등이 속하고
- 셋째, 주생활관리에는 청소, 주택정리, 주택손질, 정원손질 등이 포함되고
- 넷째, 가정관리에는 육아, 교육, 성인 돌보기, 가족의 위안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신체적 관리 등이 속하고
- 다섯째, 경영 및 장보기에는 가계부기입, 물건구입, 생활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분류는 주부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중·고등학생에게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가사노동의 내용을 크게 4개의 영역 즉,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으로 분류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중·고등학생에게 알맞게 표현하여 본 연구를 위한 질문지 문항으로 사용하였다.

3. 자녀의 가사노동참여

1) 자녀의 가사노동참여 경향

오늘날 가사노동에 대한 가족원들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가사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윤숙현, 문숙재, 1997).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도는 가사노동을 손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준 가정 기기가 가정에 많이 보급된 이후에도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의 가사노동참여는 가정 기기의 보급이후에 감소하였다. 가사노동참여가 감소한 것은 가사노동을 대체해주는 소비상품이 등장했고, 여성의 교육기회와 수준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수준의 증가와 더불어 주부의 역할 강화는 딸을 가사노동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주부의 일이기 때문에”, “크면 기회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각자의 할 일이 있으므로”, “가사노동이 주부의 일이라는 고정된 관념”,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의 이유로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가 왜곡되고 있다

(김성희, 이기영, 1997).

그리고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 가족의 가사노동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경우도 주부의 보고에 의한 것이며, 자녀들이 직접 응답한 경우는 거의 없어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에 대한 조사방법은 응답자를 다양하게 포함하는 연구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2) 자녀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①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정수와 고경애(1985)의 연구, 김경자(1983)의 연구, 주경란(1982)등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결과와는 다르게 Walker와 Woods(1976) 연구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 참여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자녀의 연령이 12세 이상일 때 자녀의 가사노동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증대한다고 보면,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학년일수록 참여율이 적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족원의 가사노동참여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

성별에 따라서는 이정수·고경애(1985)의 연구에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가사노동에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딸이 아들보다 가사노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 참여하는 영역에 있어서 딸은 식사관리와 주택청소에 참여하는 반면, 아들은 가족관리와 주택·뜰·자동차·애완동물관리, 특별한 주택관리에 주로 참여하여 자녀가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영역에서 성차가 있었고, 연령증가에 따라 딸이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는 김미숙(1980)의 연구에서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감소한다고 했으며 이는 딸 등의 가사조력자가 출현함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어 모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사노동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이정수와 고경애(1985)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전체적인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성숙현(1985)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은 가족이 다 같이 참여하였고 각자의 능력에 맞게 역할 분담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가사노동 분담 행동은 이연주(1984)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때 주부취업에 따른 자녀의 역할수행의 증가가 더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정수와 고경애(1985)의 연구에서는 수입이 증가할수록 자녀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비교적 가사조력인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정한선(1989)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적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도에서는 성적이 상위집단인 학생이 가사노동참여를 더욱 기피하는 것으로 본다.

② 가족구성 변인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정한선(1989)의 연구에 의하면 의생활, 식생활 영역에서 중간·장남(장녀)·막내·외동의 순으로 높은 가사노동 참여도를 보였다. 그리고 가족형태가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처럼 가족형태가 청소년의 가사노동 참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③ 주거특성 변인

중학생의 가사노동 참여도에 관한 연구(정한선, 1989)에서는 한옥, 양옥·아파트, 절충식의 순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부엌공간의 사회성에 대한 욕구요인이 가사일에 대한 가족의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침을 볼 때 부엌시설의 편리성 정도가 청소년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나 행동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④ 가족심리적 변인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가족

심리적인 변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많지 않다. 하지만 가사노동이 단순히 노동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관계적인 측면의 경험임을 감안할 때 다른 변인들보다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⑤ 가사조력자 변인

윤복자(1975)에 의하면 가정부가 있을 경우 자녀의 참여도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정한선(1989)의 부의 가사조력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도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가족 돌보기와 시장보기에서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부가 가사조력을 많이 할수록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1) 배경 변인의 측정도구

각 변인의 척도구성을 위해서 크게 사회인구학적 변인, 주거특성 변인, 가족구성 변인, 가족심리적 변인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학교, 성별,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월평균수입, 학생성적으로 하고, 가족구성변인에는 형제·자매수, 출생순위, 가족형태를 포함하며, 주거특성변인에는 주거형태, 부엌시설이나 설비의 편리성이 포함되어 있다. 가족심리적 변인으로는 가족원중 편한대화상대와 가족간의 대화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칭찬정도, 그리고 가사조력자 변인으로 가사조력자 유무, 아버지의 가사조력유무의 문항을 넣어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가사노동 참여도의 측정도구

이 척도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가사노동 영역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의생활 12문항, 식생활 14문항, 주생활 14문항,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14문항 등의 가사작업

이 포함되는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5단계 평정법으로 자주 한다(5점), 한다(4점), 보통이다(3점), 거의 하지 않는다(2점), 전혀 하지 않는다(1점)로 나누어 1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참여가 낮은 것으로 하였다. 가사노동참여도의 측정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4$ 로 높게 나타나 신뢰할만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조사 대상 및 시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전라남도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이며 자취생을 제외한 남녀 학생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가사노동 영역별 가사노동 작업내용이 청소년들에게 적합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12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55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처리방법

가정과 교사를 통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실에서 배부하였으며 배부된 55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와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총 481부가 분석자료로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가사노동 참여수준과 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F검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유의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를 위한 자료분석은 모두 SPSS PC+ Program Package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학 교	중학교	185(38.4)
	고등(인문계)	147(30.6)
	고등(실업계)	149(31.0)
	계	481(100)
학 년	(중 학교 1학년) 1	69(14.3)
	(중 학교 2학년) 2	47(9.8)
	(중 학교 3학년) 3	69(14.3)
	(고등학교 1학년) 4	108(22.5)
	(고등학교 2학년) 5	188(39.1)
	계	481(100.0)
성 별	남학생	188(39.1)
	여학생	293(60.9)
	계	481(100.0)
부 의 연 령	30-39세이하	19(4.1)
	40-49세이하	280(59.8)
	50세이상	169(36.1)
	계	468(100.0)*
모 의 연 령	30-39세이하	111(23.5)
	40-49세이하	293(62.1)
	50세이상	68(14.4)
	계	472(100.0)*
부 의 학 령	국 졸	68(14.9)
	중 졸	114(25.0)
	고 졸	219(48.0)
	대졸이상	52(11.4)
	기 타	3(0.7)
	계	456(100.0)*
모 의 학 령	국 졸	125(27.1)
	중 졸	147(31.9)
	고 졸	160(34.7)
	대졸이상	20(4.3)
	기 타	9(2.0)
	계	461(100)*
월 평균 수 입	100만원 미만	92(20.6)
	100만원 이상 - 150만원미만	124(27.8)
	150만원 이상 - 200만원미만	119(26.7)
	200만원 이상 - 250만원미만	51(11.4)
	250만원 이상	60(13.5)
	계	446(100.0)

*무응답에 의하여 변인마다 사례수가 차이 있음.

본 연구대상자는 중학교 1, 2, 3학년과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로, 중학생이 38.4%, 인문계 고등학생이 30.6%, 실업계 고등학생이 31.0%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남학생은 39.1%, 여학생은 60.9%로 분포되어 있다. 아버지의 나이는 40-49세 이하가 59.8%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나이는 40-49세 이하가 62.1%로 많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 48.0%로 많고,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34.7%로 많았다.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20.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54.5%로 절반 이상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가사노동 참여수준

1) 의생활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참여

〈표 2〉를 보면 의생활 영역에서 남녀의 전체가사노동 참여수준은 3.51로 '한다(4)'와 '보통이다(3)'의 중간정도로 참여한다고 나타났고, 남학생의 참여수준은 3.46, 여학생의 참여수준은 3.55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보면 '다리미질을 한다', '단추, 옷단등 찢어진 곳을 바느질한다', '외출후, 옷을 손질해서(먼지 털기, 얼룩제거)옷걸이에 건다',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는다', '옷을 고치거나, 새로운 것(냅킨, 방석등)을 만든다'의 문항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다. 이러한 문항들은 전체 가사노동 참여가 낮은 문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참여가 높다는 것은 주목 할만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참여가 높은 가사노동문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체로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매일 반복되는 의생활영역의 가사노동과 전가족원의 의복에 관련된 가사노동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고, 가끔씩 발생하는 의생활 관련 가사노동과 자신의 의복에 관련된 가사노동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식생활 영역에서의 가사노동참여

〈표 3〉을 보면 식생활 영역에서 남녀 전체가사노

<표 2> 의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참여

순위	문항	전체	남학생	여학생
1	마른빨래를 건조 개어서 서랍에 넣는다.	416	390	432
2	더러워진 옷, 빨래감등을 한곳으로 모은다.	411	407	414
3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빨랫줄에 말린다.	407	388	420
4	옷장정리, 서랍정리, 헌옷정리를 한다.	394	396	393
5	새탁기를 돌린다.	391	373	403
6	손수건, 양말, 속옷 등을 손빨래한다.	351	341	356
7	운동화, 가방 등을 빨래한다.	341	336	344
8	다리미질을 한다.	340	342	338
9	단추, 옷단등 찢어진 곳을 바느질한다.	332	342	326
10	외출후, 옷을 손질해서 (먼지 털기, 얼룩제거)옷걸이에 건다.	326	331	323
11	세탁소에 세탁물을 맡기고, 찾는다.	309	313	307
12	옷을 고치거나, 새로운 것(넙킨, 방석등)을 만든다.	211	222	203
전체		351	346	355

<표 3> 식생활영역의 가사노동참여

순위	문항	전체	남학생	여학생
1	수저, 반찬 등을 식탁에 놓는다.	408	382	425
2	간단한 간식을 만든다(라면, 달걀후라이 등...).	408	423	398
3	어머니가 안 계시면, 식사준비를 내간다.	394	379	403
4	식사후 식탁이나 밥상을 치운다(담거나 냉장고에 반찬 넣기).	390	361	410
5	늦게 돌아오면 밥은 내가 찾아 먹는다.	388	389	388
6	식사중 물, 음식을 가져간다.	379	376	381
7	설거지를 한다.	331	282	362
8	반찬을 만들 때 도와준다(마늘 까기, 멸치 까기, 콩나물 다듬기).	309	267	336
9	아무도 없을 때, 손님에게 차 음료수를 대접한다.	298	266	319
10	음식쓰레기를 버린다.	294	291	297
11	도시락은 내가 챙겨서 학교에 간다.	241	224	252
12	사용한 가스레인지, 싱크대, 냉장고, 전기기구를 닦는다.	239	208	259
13	식사후 음료, 커피, 과일을 준비한다.	238	212	254
14	음식(반찬)을 직접 만든다.	225	216	230
전체		325	305	338

동 참여수준은 3.25로 보통의 수준으로 참여한다고 나타났고, 남학생의 가사노동 참여수준은 3.05, 여학생은 3.38 정도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생활 영역에서 자녀들이 참여하는 가사노동 작업을 보면 비교적 간단하고 부분적인 일은 학생

들이 잘 참여하지만 전체적인 일, 손이 많이 가는 일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문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사노동참여가 많았으나 '간단한 간식을 만든다(라면, 달걀후라이등...)'에서만 남

〈표 4〉 주생활영역의 기사노동참여

순위	문항	전체	남학생	여학생
1	방정리를 한다(책상, 책꽂이 정리등).	381	315	336
2	방을 쓸고 닦는다.	372	267	291
3	가족의 방이나, 거실을 정리한다.	313	279	320
4	신발정리 및 신발을 신장에 놓는다	311	410	403
5	세면장의 도구를 정돈해 둔다(세면도구, 화장지를 챙겨놓는다).	310	231	211
6	쓰레기를 집밖의 쓰레기 수거장으로 옮겨놓는다(쓰레기를 분리).	292	222	235
7	세면장을 물 청소(대청소)한다.	281	385	329
8	이불, 젖은 우산 등을 말린다.	261	302	300
9	유리창, 더러운 구석을 닦는다.	254	206	205
10	마당이나 베란다, 현관을 치우고 청소한다.	245	276	286
11	집안에 물건을 (창고정리, 베란다정리)정돈한다.	234	253	308
12	꽃, 식물, 화분에 물을 주거나 가꾼다.	230	294	337
13	고장난 가구, 기구를 고친다.	195	383	406
14	전구갈기, 벽에 못박기, 벽도배, 페인트칠하기	185	276	307
	전체	276	269	280

학생이 423, 여학생이 398로 남학생의 참여가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늦게 돌아오면 밥은 내가 찾아 먹는다'는 남학생이 389, 여학생이 388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식생활영역에서 남학생의 기사노동 참여가 자신의 식사나 간식은 직접 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 접근되어 있어서 앞으로 남녀의 평등한 가사분담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3) 주생활영역에서의 기사노동참여

〈표 4〉를 보면 주생활영역에서 남녀 전체기사노동 참여는 276으로 보통이하 수준으로 참여하였고, 의생활영역, 식생활영역, 가족돌보기영역에서 보다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의 기사노동참여수준은 269, 여학생은 280으로 나타나 주생활영역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다. 이것은 이정수(1984)의 연구에서 딸은 식사관리에 아들은 주택관리 영역에 시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와 다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여학생이 대부분의 문항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으나

'신발정리 및 신발을 신장에 놓는다.', '세면장의 도구를 정돈해 둔다.(세면도구, 화장지를 챙겨놓는다)', '세면장을 물 청소(대청소)한다.'의 문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생활공간중에서 개인적 공간에서는 여학생이, 공동공간인 세면장과 현관의 청소와 관리는 남학생이 더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의 기사노동참여

〈표 5〉를 보면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남녀 전체기사노동 참여수준은 304로 '보통이다(3)' 과 '한다(4)'에서 보통이다 정도로 참여하고, 남학생은 296, 여학생은 309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본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다. '가족의 잔심부름을 한다', '무거운 짐이나 물건을 옮긴다', '전화·전기요금·세금을 내거나, 우편물 등을 관리한다'의 문항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다. 자녀들이 가족원의 물건구입을 돕거나, 세금을 낸다는 가정관리를 직접하는 기사노동이라고 하기 보다는 가정관리자의 구입활동이나 세금관

〈표 5〉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의 가사노동참여

순위	문항	전체	남학생	여학생
1	가족의 잔심부름을 한다.	406	410	403
2	집보는 일을 한다.	397	383	406
3	무거운 짐이나 물건을 옮긴다.	351	385	329
4	농사일이나 부모님의 일을 도와준다.	338	331	343
5	가족의 병간호를 한다(치료, 허리, 어깨, 두들겨 주기).	328	315	336
6	동생, 형, 누나, 언니의 일을 도와준다(학습, 씻기, 놀기).	320	294	337
7	생일, 결혼기념일, 제사 등의 준비를 도와준다.	304	279	320
8	가족의 대화상대가 된다.	301	302	300
9	가정의 필수품을 구입할 때 도와준다.	295	276	307
10	가족이 외출할 때 준비를 도와준다.	286	253	308
11	가족이 우울할 때 명랑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쓴다.	282	276	286
12	가족의 구두를 닦는다.	230	222	235
13	전화, 전기요금, 세금 내거나, 우편물 등을 관리한다.	219	231	211
14	친척에게 안부전화, 편지한다.	206	206	205
전체		304	296	309

리를 대신하여 일부분만 수행함으로 심부름이라 볼 수 있겠다.

2. 배경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학교에 따라서는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고, 주생활영역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다.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참여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저학년이 가족과의 관계와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저학년은 가족원과 지내는 시간이 많고 고학년이 되면 가족 외의 친구와 학교 등 가정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생활 영역은 힘과 기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므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사노동참여도가 줄어든다는 결과와는 다르게 연령

의 증가에 따른 전체 가사노동참여도에는 차이가 없었고 가사노동영역에 따라서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는 저학년이 더 많이 참여하고, 주생활영역에서는 고학년이 더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에 따라서는 식생활 영역과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만 남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이 영역의 가사노동작업은 표현적 특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학생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평균 수입에 따라서는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의 가사노동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만 고졸이상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의 학력에 따라서는 식생활 영역에서만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에 의해 가사노동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영역에 따라서 긍정적·부정적 방향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외에 부모의 연령, 모의 연령, 학생성적에 따라서는 모든 가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변인	구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전체	
		M	D	M	D	M	D	M	D	M	D
학교	중학생(173)	3.58		3.18		2.67	B	3.12	A	3.11	
	고등학생(274)	3.47		3.30		2.81	A	3.00	B	3.14	
	F	1.15		2.98		4.22*		3.97*		.24	
성별	남학생(176)	3.46		3.05	B	2.69		2.96	B	3.00	
	여학생(271)	3.55		3.38	A	2.80		3.09	A	3.21	
	F	.79		22.85***		2.25		4.44*		11.37	
부연령	30-39세이하(18)	3.76		3.32		2.79		3.19		3.27	
	40-49세이하(264)	3.53		3.24		2.73		3.06		3.12	
	50세이상(153)	3.43		3.22		2.76		2.97		3.10	
	F	1.11		.15		.11		1.50		.51	
모연령	30-39세이하(104)	3.58		3.23		2.70		3.04		3.10	
	40-49세이하(269)	3.52		3.23		2.75		3.04		3.13	
	50세이상(65)	3.40		3.34		2.82		3.02		3.14	
	F	.60		.66		.50		.06		.12	
부학력	국졸(60)	3.39		3.20		2.74		2.85	A	3.01	
	중졸(108)	3.53		3.33		2.80		3.03	A	3.13	
	고졸(204)	3.55		3.26		2.74		3.09	B	3.16	
	대졸이상(52)	3.59		3.01		2.70		3.07	A	3.07	
	F	.46		2.33		.27		2.34*		1.12	
모학력	국졸(116)	3.49		3.22	A	2.72		2.93		3.07	
	중졸(137)	3.59		3.39	B	2.81		3.09		3.18	
	고졸(147)	3.52		3.18	A	2.71		3.09		3.14	
	대졸이상(28)	3.64		3.11	A	2.95		3.19		3.21	
	F	.27		2.51*		1.12		1.96		.64	
월평균수입	100만원미만(32)	3.38		3.31		2.80		2.93	A	3.10	A
	100만원이상-150만원미만(202)	3.60		3.23		2.77		3.06	A	3.13	A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109)	3.36		3.17		2.68		2.98	A	3.01	A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47)	3.72		3.24		2.75		3.08	A	3.21	A
	250만원이상(56)	3.67		3.34		2.85		3.32	B	3.30	B
	F	2.02		.67		.64		3.53**		1.96	
학생적	상(1-20등)(235)	3.45		3.29		2.75		3.07		3.13	
	하(210등이하)(208)	3.60		3.22		2.76		3.01		3.14	
	F	2.37		1.10		.02		.81		.01	

***P<.001 **P<.01 *P<.05

사노동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가족구성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형제·자매 수에 따라서는 식생활 영역만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핵가족형태가

족이 다른 형태의 가족보다 더 식생활영역에서 가사노동참여도가 높다. 형제수가 많고, 핵가족형태의 집단에서 식생활영역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수가 많고 가족구성이 간단한 핵가족이

<표 7> 가족구성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변인	구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전체	
		M	D	M	D	M	D	M	D	M	D
형제 자매수	1-2명(146)	3.52		3.12	A	2.74		3.02		3.11	
	3명(149)	3.42		3.22	A	2.74		3.10		3.10	
	4명이상(152)	3.60		3.36	B	2.78		3.01		3.17	
F		1.23		3.24*		.13		.82		.45	
출생 순위	첫째(138)	3.52		3.25		2.73		3.05		3.12	
	둘째(138)	3.55		3.21		2.76		3.05		3.14	
	셋째(83)	3.45		3.23		2.73		3.08		3.10	
	넷째 이후(87)	3.50		3.33		2.81		1.98		3.14	
F		.19		.53		.27		.37		.07	
가족 형태	핵가족(부모+미혼자녀)(348)	3.51	B	3.29	A	2.74		3.07		3.14	
	확대가족(조부모+부모+미혼자녀)(58)	3.36	B	3.27	A	2.89		3.06		3.12	
	기타(부부+자녀+기타가족원)(38)	3.76	A	2.90	B	2.75		2.85		3.06	
	F	1.73		5.03**		1.02		2.01		.27	

**P<.01 *p<.05

<표 8> 주거특성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변인	구분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족돌보기		전체	
		M	D	M	D	M	D	M	D	M	D
주거 형태	한옥(110)	3.47		3.28		2.76		2.95		3.11	
	양옥(127)	3.40		3.27		2.79		3.11		3.16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174)	3.62		3.21		2.68		3.06		3.12	
	기타(32)	3.48		3.32		3.02		3.06		3.15	
	F	1.23		.38		2.33		1.25		.16	
부업시설이나 설비의 편리성	상(67)	3.80	B	3.38	A	3.02	BC	3.17	B	3.31	A
	중(346)	3.48	A	3.26	B	2.73	A	3.06	B	3.13	BA
	하(30)	3.34	A	3.00	A	2.61	A	2.66	A	2.84	BC
	F	3.13*		3.10*		5.86*		7.76**		5.86**	

**P<.01 *p<.05

식생활관련 가사노동을 가족원에 의해 많이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다.

3) 주거특성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부업시설이나 설비의 편리성은 부업시설·설비의 편리성이 상(上)인 집단이 모든 영역에서 가사노동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업시설과 설비가 잘 되어있고 편리할수록 자녀들의 가사노동 참

여도가 늘어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볼 때 부업시설이나 설비의 편리성은 다른 변인들보다도 자녀의 가사노동참여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 기기의 보급이 가족원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모든 가사노동 영역에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가족심리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가족 심리적 변인중 모든 변인이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집단간의 참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원중 편한 대화 상대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은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가장 편한 상대가 가족원중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

는 어머니인 경우 즉,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 때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의 가사노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대화 만족도에 따른 가사노동참여는 가족과의 대화에 만족하고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자녀들의 가사

<표 9> 가족심리적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변 인	구 분	의 생활		식 생활		주 생활		가족돌보기		전 체	
		M	D	M	D	M	D	M	D	M	D
가족원중 편한대화 상대	아 비 지(26)	3.65		3.13		2.84		2.93	A	3.05	
	어 머 니(180)	3.55		3.21		2.76		3.15	B	3.16	
	형 · 누 나(132)	3.48		3.37		2.77		3.04	A	3.16	
	동 생(65)	3.47		3.30		2.70		2.98	A	3.09	
	이 외 의 가족(37)	3.58		3.13		2.80		2.80	A	3.06	
	F	.26		1.56		.21		3.09*		.42	
가족간의 대화 만족도	불 만 족(76)	3.62		3.17		2.65		2.80	A	3.05	
	보 통 이 다(282)	3.48		3.27		2.75		3.05	B	3.13	
	만 족(86)	3.57		3.28		2.87		3.24	BC	3.21	
	F	.71		.68		1.99		10.11***		1.26	
가정생활 만족도	상(93)	3.54		3.19		2.69		3.18	B	3.14	
	중(298)	3.54		3.29		2.79		3.04	B	3.15	
	하(51)	3.28		3.19		2.69		2.83	A	3.00	
	F	1.44		.89		1.07		4.83*		1.29	
칭찬정도	항 상 받 는 다(31)	3.80	A	3.57	A	3.17	A	3.53	A	3.54	AC
	받 는 다(82)	3.68	A	3.31	AB	2.77	B	3.09	B	3.20	A
	보 통 이 다(111)	3.38	AB	3.29	AB	2.75	B	3.09	B	3.12	A
	가 끔 받 는 다(182)	3.53	AB	3.17	B	2.68	B	2.96	B	3.05	A
	전 혀 받 지 않 는 다(41)	3.25	B	3.19	B	2.79	B	2.89	B	3.05	B
	F	2.25		2.30		3.34		5.88***		4.26**	

***P<.001 **P<.01 *P<.05

<표 10> 가사조력자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가 사 조력자 유 무	있 다(37)	없 다(407)	의 생활		식 생활		주 생활		가족돌보기		전 체	
			M	D	M	D	M	D	M	D	M	D
아버지의 조력유무	잘하신다(102)	3.63		3.31		2.84	B	3.13		3.23	A	
	보통이다(212)	3.55		3.25		2.76	A	3.05		3.13	A	
	안하신다(121)	3.34		3.17		2.63	A	2.94		3.01	B	
	F	2.40		1.05		2.75		2.50		3.33*		

***P<.001 **P<.01 *P<.05

노동참여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가정생활에 만족한 집단이 가사노동참여가 높은 것은 가정생활에 만족할수록 가족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칭찬정도에 따라라도 칭찬을 많이 받는 집단이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과 전체 가사노동 영역에서 가사노동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사조력자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 참여수준

가사 조력자 유·무에 따른 가사노동참여는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의생활 영역과 가족 돌보기 영역, 전체가사노동 영역에서 가사참여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복자(1975)의 가사조력자가 없을 경우 자녀의 참여가 늘어났다는 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아버지의 조력유·무는 전체 가사노동참여에서 아버지가 가사조력을 잘 할수록 자녀의 가사노동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집단간에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한선(1989)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가사조력을 많이 할수록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가 높아진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가사조력자가 있거나 아버지가 가사조력을 많이 하거나 하는 경우는 누군가와 가사노동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가치를 고취시키는 입장에서 청소년 자녀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특성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적극적인 가사노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고등학생의 가사노동참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전체가사노동 영역에서의 참여수준은 5점과 1점 사이에서 3.13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는 의생활 영역은 3.51, 식생활 영역은 3.25, 가족 돌보기 영역은 3.04, 주생활 영역은 2.76순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영역의 가사노동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주생활 영역의 가사노동참여는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여학생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보다 더 많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들의 가사노동 참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구성변인, 주거특성변인, 가족심리적인 변인, 가사조력자 변인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중 성별에서는 식생활 영역과 가족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에 따라서는 주생활 영역에서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많이 참여하였다. 월평균 수입이 높은 집단이 가족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 가사노동참여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가족구성 변인에서는 식생활 영역에서 형제·자매수가 4명이상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참여를 보였고, 핵가족이 다른 집단보다 많이 참여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주거특성 변인중 부엌시설이나 설비의 편리성이 모든 가사노동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는데 부엌시설이나 설비의 편리성이 상(上)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모든 영역에서 가사노동참여가 높았다.

다섯째, 가족 심리적인 변인은 가족 돌보기 및 심부름 영역에서는 거의 모든 변인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편한 대화 상대자가 어머니일 때, 가족간의 대화에 만족할 때, 가정 생활에 만족할 때, 칭찬을 많이 받을 때 가사노동참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체 가사노동 참여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을 때 청소년들이 가사노동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섯째, 가사조력자 변인은 의생활 영역에서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 많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전체가사노동 참여에서도 가사조력자가 있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가사조력을 잘 할 때 청소년들이 가사노동참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집단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첫째, 청소년들의 가사노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분위에서 가정생활에 만족감을 느끼도록 해야하며 가족간의 관계가 원만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많은 칭찬이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사노동참여가 단순한 노동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관계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가사조력자가 있을 경우와 아버지가 가사조력을 잘 할 때 청소년들의 가사노동참여가 많음을 알 수 있었는데 가사조력자가 있을 경우 청소년들의 가사참여가 많아진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가사노동을 누군가와 함께 수행할 수 있을 때 더 참여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가사노동의 주책임자로 여겨지는 주부가 가사노동을 싫어하는 이유도 혼자 하는 경우와 가족의 무반응이라고 하였던 것처럼 자녀도 부·모·형제 또는 가사조력자라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었을 때 가사노동참여과정에 자연스럽게 접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가사노동은 한사람 혼자 하는 것보다 협조·협동·공동작업이 되도록 가사노동참여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엌의 설비나 시설의 수준이 가사노동참여에 미치는 주요한 변인이므로 자녀가 좋아하는 적절한 설비와 시설로서 가사노동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선행연구에서는 가정 기기 보급이 가족원의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택설비 및 기기가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다르게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각 영역별

에서 이루어지는 가사작업 특성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지금까지 가사노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고찰되지 않았던 가족 심리적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여 본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체적인 생활인으로서 생활능력과 기술로 가정생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생활교육의 경험이 되도록, 그리고 가정의 역할과 기능이 잘 수행되도록 가사노동을 계획해야 하겠다.

둘째,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등의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성들도 스스로 전통적인 인습에서 벗어나 가족공동체 생활의식을 가지고 전 가족원의 가사노동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부모는 가정교육의 측면에서 주체적인 생활인으로서 요구되는 협동정신·성취감·만족감·사회적응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가사노동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능력과 가정환경에 맞게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것을 습관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넷째, 부모가 자녀의 가사노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 강화인 많은 칭찬이 일상 가정생활에서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또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가사노동이 자녀의 가사노동 참여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모든 가족원의 평등한 가사노동참여가 중시되고 증가되어야 한다.

여섯째, 무엇보다도 자녀의 가사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모는 안정적이고 가족간의 관계도 원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김경자(1983), 고등학교 학생의 가사 조력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 논문.
- 2) 김성희·이기영(1997), 가정기기가 가사노동수행 과정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1호: pp81-94.
 - 3) 문숙재·채옥희(1989), 가사노동, 신광출판사.
 - 4) 문숙재(1991), 가사노동의 가치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pp285-302.
 - 5) 문숙재·조성은(1995), 남녀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4호: pp139-150.
 - 6) 윤숙현(1998), 가사노동의 가정교육적 의미, 한국가정과학회지, 제1권 1호: pp14-26.
 - 7) 윤숙현·문숙재(1997), 가사노동의 개인적 의미와 제도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5호: pp119-129.
 - 8) 왕석순(1997), 청소년기 자녀 가족의 가정교육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2호: pp 71-85.
 - 9) 이춘재 외(1993),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10) 임정빈 외(1992), 가정관리학, 서울, 학지사.
 - 11) 위금영(1992), 청소년의 가사노동가치의식에 따른 가사노동의 분담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정한선(1989), 중학생의 가사노동 참여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13)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14) 지영숙·이영호(1997), 가정교육에 대한 계획 및 수행이 가정건전도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2호: pp87-97.
 - 15) 조성은(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0), 한국가족기능과 역할 변화.
 - 17) 최수선(1995),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8) Lovett, S. B., Abdel-Ghany, M.(1988), Children's contributions to household activities in single-parent and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2: pp199-204.
 - 19) White, L. K., Brinkerhiff, D. B.(1981) Children's work in the family: its significance and mean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Nov: pp789-798.
 - 20) Witier, J. G.(1980), Domestic labor as work discipline: the struggle over housework in foster homes, in: Berk, S. F., eds, Woman and household labor, SAGE Publications, London.

